

## 신라 사천왕사지 단석의 고찰

A Study on the Platform Stone of Guardians Temple Site of the Four Heavenly Kings

---

저자 (Authors)	장충식 Choong Sik Chang
출처 (Source)	<a href="#">불교학보 39</a> , 2002.12, 7-23(17 pages) <a href="#">BUL GYO HAK BO 39</a> , 2002.12, 7-23(17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a> Institute for Buddhist Culture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93314">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93314</a>
APA Style	장충식 (2002). 신라 사천왕사지 단석의 고찰. 불교학보, 39, 7-23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9/29 11:36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新羅 四天王寺址 壇席의 考察

張 忠 植\*

- I. 머리말
- II. 神遊林과 四天王寺
- III. 壇席의 推定
- IV. 맺음말

## I. 머리말

불교미술사의 연구대상이 되는 조형작품의 등장에는 언제나 그 선행 단계로서의 상징물이 있기 마련이다. 無佛像時代의 중요한 경배대상으로 알려진 연꽃·보리수·法輪과 함께 佛足이나 金剛寶座 등도 모두 불상의 창조 이전에 선행하였던 중요한 상징물이다.

나아가 신라사회에 있어서도 시간과 방위의 상징으로서 수호적 성격을 지녔던 十二支神像 역시 그 선행 단계로서의 상징물을 지녔던 것으로 생각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당나라 군사의 내침을 두 번이나 물리쳤던 것으로 기록된 四天王寺의 壇席은 이후 신라 석탑 등에 등장되는 십이지신상의 선행조건으로서의 상징물로 인식된다는 뜻이다. 이 단석은 明朗에 의하여 文豆婁秘法이 행해졌던 중요한 조형물로서 『三國遺事』 집필 당시까지도 儼存하여 一然是 ‘至今不墜壇席’이란 귀중한 문구를 남기고 있다. 따라서 사천왕사지 현장에서 이 단석에 비정되는 遺構를 지적한 바 있으나<sup>1)</sup> 아직까지 현장 유구가 十二支를 상징할 수 있는 12개가 아니고, 그 배수인 24란 점에 집착하여 그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는 듯 하다.

이에 필자는 일연 자신이 實見하였던 이른바 壇席의 현상 자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立證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특히 사천왕사의 단석은 신라 神印宗의 鼻祖 明朗과 그 후예인 安惠, 朗融 등이 金庾信과 함께 세운 遠願寺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遠願寺 동서쌍탑의 십이지신상 24구는 단석으

\* 東國大學校 美術史學科 教授.

1) 張忠植, 「新羅 狼山遺蹟의 諸問題」,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 論文集』 제17집, 1996, pp.15~36 ; 이곳에서도 壇席 遺構에 대하여 추정하고 있으나 통일신라시대 쌍탑가람에 등장되었던 對稱의 원리에 대한 구체적 해명이나 실증적 자료제시가 미진하였다.

로 추정되는 사천왕사지 金堂 후방의 초석 유구 24점의 문제 해결에 귀중한 열쇠가 되리라 보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통일신라시대란 가람배치에 있어서도 좌우대칭의 시기란 점도 중요한 시사를 지니는데, 문제의 사천왕사는 전형적인 쌍탑가람이고, 이를 모방한 望德寺나 東都의 최고가람으로 알려진 불국사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쌍탑가람이 지닌 상징성의 변모 역시 중요하다. 건축에 있어서 좌우대칭이란 장엄적 성격을 지니면서 권위의 상징이 되고 있으므로 쌍탑가람의 사천왕사에서 이와같은 대칭적 華飾은 충분히 납득된다. 동시에 단석 유구에 대한 해석은 문두루법의 경전적 내용을 의지하여 접근하는 종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되, 그간의 오류를 바로잡아 유구의 현상과 경전상 해석의 일치점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II. 神遊林과 四天王寺

사천왕사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창건 설화에서 뿐 아니라 주변 유적에 있어서도 비교적 풍부한 자료를 지니고 있다. 즉 月明師의 피리와 연관된 月明路 또는 月明里<sup>2)</sup>라든지 선덕여왕의 예언을 적중시킨 이른바 知幾三事 가운데 切利天下의 四天王寺 건립을 豫斷한 설화<sup>3)</sup>의 현장이기도 하다. 여기서 말하는 切利天<sup>4)</sup>의 설정은 신라인의 불교적 인생관 내지 세계관의 확립이라 할 수 있다. 즉 사천왕은 위로 帝釋天을 받들고 아래로 八部衆을 거느리는 護世天인데, 이는 각기 동서남북의 지역을 맡아 國土와 人民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들 사방의 수호개념이 造形的으로 나타날 때는 方位에 따라 十二支神像을 3구씩 예속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sup>5)</sup> 그 대표적 예로는 경주 遠願寺址 동서삼층석탑의 부조상을 들 수 있다.

먼저 사천왕사가 위치한 곳이 神遊林<sup>6)</sup>이었음은 신라인들이 신성시하였던 聖山이었고, 이곳은 仙靈降遊하였던 福地로 인식되었다.<sup>7)</sup> 동시에 이곳 신유림은 사천

2) 『三國遺事』卷6 「月明師兜率歌條」, “明常居四天王寺 善吹笛 嘗月夜吹過門前大路 月馭爲之停輪 因名其路曰月明里”.

3) 『三國遺事』卷1 「善德王知幾三事條」, “三王無恙時 謂群臣曰 朕死於某年某月日 葬我於切利天中 群臣罔知其處 奏云何所 王曰 狼山南也 至其月日 王果崩 群臣葬於狼山之陽 後十餘年 文殊大王創四天王寺於王墳之下 佛經云 四天王天之上 有切利天 乃知大王之靈聖也”.

4) 須彌山을 중심으로 그 중턱에 四天王이 있고, 그 위에 도리천이 있는데 일명 33天이라고도 한다. 그 의미는 도리천 사방의 八天과 그 중앙 帝釋이 居하는 善見城을 지칭하는 것이다.

5) 즉 北方은 亥(猪)子(鼠)丑(牛), 東方은 寅(虎)卯(兔)辰(龍), 南方은 巳(蛇)午(馬)未(羊), 西方은 申(猴)酉(鷄)戌(犬)像이 그것이다.

6) 『三國遺事』卷3 「阿道基羅條」, “...六曰神遊林(今天王寺 文武王己卯開)”, 또는 同書 卷2 “狼山之南有神遊林 創四天王寺於其地”라 하였다.

7) 『三國史記』卷3 「實聖尼師今條」, “十二年 秋八月 雲起狼山 望之如樓閣 香氣郁然 久而不歇 王謂是必仙靈降遊 應是福地 從此後 禁人斬伐樹木”.

왕사의 창건(679년)에 선행하여 신라의 호국사상과 결부된 중요한 사건이 2회에 걸쳐 행해진다. 그것은 明朝의 밀교적 행법에 의하여 이룩된 文豆囊秘法이다. 이 비법에 의하여 당나라 군사의 내침을 2회에 걸쳐 물리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을 단순한 설화적 내용으로만 보아 넘겨서는 그 사건의 진실에 접근할 수 없다. 그것은 고대 기록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추상성 자체를 전적으로 역사적 허구로 치부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적 역할이란 예나 지금이나 매 한가지다. 당나라 내침에 대한 정보를 金欽純<sup>8)</sup>은 유학중인 義相에게 알려줌으로써 의상은 670년에 서둘러 귀국하였던 것도 결국은 의상과 같은 고승의 지혜가 동원된 것이고, 국민의 단합을 위한 종교적 의례행위 역시 필수적이었다고 생각된다.

먼저 의상 귀국과 관계되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어 참조된다.

본국의 丞相 金欽純(혹은 仁問)과 良圖 등이 당에 가서 간혀 있었는데, 당의 高宗은 크게 군사를 일으켜 東征하려 하였다. 흠순 등이 은밀히 의상에게 사람을 보내어 앞서 가도록 권유하므로 함형 원년 경오(670)에 환국하여 그 사정을 조정에 알렸다.<sup>9)</sup>

하였고, 같은 책 문무왕법민조에는 『삼국사기』와 달리 김인문으로 기록하고 있다. 즉

이듬해(670) 당나라의 고종이 仁問 등을 불러서 꾸짖기를, “너희들이 우리 군사를 청하여 고구려를 멸하고서도 우리를 해치려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고 하고 그를 옥에 가두고 군사 50만 명을 훈련하여 薛邦을 장수로 삼아서 신라를 공격하려고 하였다. 이때 의상법사가 서쪽 당나라로 가서 유학하고 있다가 인문을 찾아보았는데, 인문이 그 사실을 알리자 의상이 곧 귀국하여 왕에게 아뢰었다.<sup>10)</sup>

이러한 두 기록은 어느 하나에만 국한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당시 당에 억류되었던 김흠순과 김인문 모두가 그러한 정보를 의상에게 전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사실 사천왕사의 건립에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唐을 비롯한 국제 정세와도 관계가 깊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사천왕사 자체가 護國三部經 가운데 하나인 金

8) 『三國史記』에서는 문무왕 9년(669) 5월에 金欽純과 金良圖를 당나라에 謝罪使로 파견하였고(『三國史記』 卷6, 문무왕 9년 5월조), 이듬해 1월 당 고종은 김흠순의 귀국만을 허락하였다(『三國史記』 卷6, 문무왕 10년 정월조)고 하였다.

9) 『三國遺事』 卷4 「義湘傳教條」, “既而本國承相金欽純(一作仁問) 良圖等 往囚於唐 高宗將大舉東征 欽純等密遣湘誘而先之 以成享元年庚午遷國 聞事於朝”.

10) 『三國遺事』 卷2 「文武(虎)王法敏條」, “明年 高宗使召仁問等 讓之曰 爾請我兵以滅麗 害之何耶 乃大圓扉 鍊兵五十萬 以薛邦爲帥 欲伐新羅 時義相師西學入唐 來見仁問 仁問以事諭之 相乃東還上聞”.

光明經의 사천왕품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나당군사동맹 이후 백제와 고구려를 정복한 뒤 당나라의 신라 침공은 기정 사실화 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謝罪使로 간 金欽純에게 환국을 허락하고, 金良圖를 옥에 가두어 죽게 하였는데 이는 신라가 백제의 토지와 遺民을 약취하였다는 구실에 기인하고 있다.<sup>11)</sup>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백제의 옛 땅을 돌려주라는 당 고종의 의견을 전해들은 신라는 오히려 백제의 故土에 대대적인 침공을 개시하였고, 이후 약 5년간 당나라와의 전투에서도 육지와 바다에서 무려 수십 차례에 걸쳐 승리를 이끌어냄으로써 당나라의 야욕을 분쇄할 수 있었던 점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무엇보다 신라인의 단합된 의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천왕사의 창건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그것은 사천왕사의 전신인 神遊林에 명랑을 중심으로 하는 密壇法을 개설하는 행위 역시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국민적 결속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행위가 국가의 위기 극복에 동원된 종교적 기능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때, 그 사실의 여부에 앞서 불교계의 대사회적 기능이 어떻게 작용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다시 말하면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 神異事에 주목하기보다는 대변혁기를 맞이한 신라 사회 전분야에 걸쳐 국민들의 정신적 결합이 어떻게 구축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국민적 단결을 엿볼 수 있는 정신적 구심점을 명랑의 문두루 비법에서 찾을 수 있고, 더구나 그와같은 위기관리를 수행한 사건의 현장에 전해지는 실증적 자료로서의 遺構를 현실 속에서 만날 수 있다면, 이 문제는 사천왕사지 가람배치 이해 뿐 아니라 신라 밀교의 호국적 성격을 밝히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보기 때문이다.

사천왕사의 창건에는 다음과 같은 비교적 풍부한 기록을 지니고 있다.

의상법사가 곧 귀국하여 왕에게 (당의 침략소식을) 아뢰자, 왕이 매우 염려하여 여러 신하들을 모아놓고 방어책을 물었다. 角干 金天尊이 아뢰기를, “근래에 명랑법사가 용궁에 들어가서 비법을 전수해 왔으니 그를 불러서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명랑이 아뢰기를, “狼山 남쪽에 神遊林이 있으니, 그곳에 사천왕사를 세우고 道場을 개설하면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때 정주에서 사자가 달려와서 보고했다. “당나라 군사들이 수없이 우리 국경에 이르러 바다 위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왕이 명랑을 불러서 말했다. “일이 이미 급박하게 되었으니 어찌 하면 좋겠소?” 명랑이 말하기를, “채색 비단으로 절을 임시로 만들면 될 것입니다.” 이에 채색비단으로 절을 짓고, 풀로써 五方神像을 만들고, 瑜珈明僧 12명이 명랑을 우두머리로 삼아 文豆婁秘密法을 짓게 하니, 그때 당나라와 신라의

11) 『三國史記』 卷6 「문무왕 10년 정월조」.

군사가 싸우기도 전에 풍량이 크게 일어 당나라의 배가 침몰하였다.

그 후에 절을 고쳐 짓고 사천왕사라 했는데, 지금까지 壇席이 없어지지 않았다.(국사에는 이 절의 개창이 調露 원년 기묘(679)에 있었다고 한다.)

그후 신미년(671)에 당나라가 趙憲을 장수로 삼아 또한 군사 5만명으로 쳐들어왔는데, 그 법을 썼더니 배들이 전과 같이 침몰했다. 이 때에 翰林郎 朴文俊이 仁問을 따라 옥중에 있었는데, 고종은 문준을 불러서 묻기를, “너희 나라에 무슨 비법이 있기에 대군을 두 번이나 말하였으나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문준이 아뢰었다. “陪臣들이 상국에 온 지가 10여 년이나 되었으므로 본국의 일을 알지 못하오나, 다만 멀리서 한 가지 사실만 들었을 뿐입니다. 곧 상국의 은혜를 두터이 입어서 삼국을 통일하였기에 그 은덕을 갚기 위해 낭산 남쪽에 천왕사를 세고 짓고, 황제의 만년 수명을 축원하는 法席을 길이 열었다는 사실뿐입니다.”

고종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곧 예부시랑 樂鵬龜를 신라에 보내어 그 절을 살펴보도록 했다. 왕은 당나라의 사신이 장차 온다는 말을 미리 듣고 이 절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라 하여 그 남쪽에 새 절을 짓고서 기다렸다. 사신이 와서 말하기를, “먼저 황제를 祝壽하는 곳인 천왕사에 분향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그를 새 절로 인도하여 보였더니, 이것은 사천왕사가 아니고 望德遙山の 절이라고 하면서 끝내 들어가지 않으므로, 國人이 금 1천 냥을 주었다. 그 사신이 본국에 돌아가서 아뢰기를, “신라에서는 천왕사를 지어 놓고 황제의 수명을 새 절에서 축원할 뿐입니다.”라고 하였는데, 당나라 사신의 이 말로 인하여 망덕사라고 하였다.<sup>12)</sup>

사천왕사가 신라 불교에 있어서 호국사찰의 근본도량이었음은 위 기록을 통하여서도 자명하다. 그 창건 역시 각별한 사연을 지니고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장소에 대한 문제라 하겠다. 그 장소는 신성한 장소이어야 하고, 그 장소를 통한 神明의 결집은 종교의례로부터 비롯된다. 사천왕사 창건 역시 天神이 하강하여 놀던 장소로 알려진 神遊林이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사천왕사는 신성을 요하는 비밀스런 장소였고, 동시에 국방상 기밀을 지닌 사찰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즉, 삼국통일 이후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던 신라인의 對唐 의식을 표방하는 중요한 사찰이 되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당나라 측에서 볼 때 신라의 經略이 如意치 않자 신라의 政情을 탐문하기 시작하였고, 신라는 당으로부터 온 樂鵬龜에게 사천왕사를 보이지 않고 별도로 新寺인 望德寺를 보여 외교적 위기를 넘겼던 것은 사천왕사가 국방상의 기밀을 보유한 사찰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기밀의 본색은 文豆婁秘密法이라 하겠는데, 과연 이러한 종교적 의례는 어떠한 것이고, 또 이를 위한 設壇

12) 『三國遺事』卷2「文虎王法敏條」.

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우릴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종교의례가 행해지던 장소는 679년 사천왕사가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의 조형적壇席으로 자리잡아 一然 당시까지 전해졌다면, 그 存否에 대한 문제 역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Ⅲ. 壇席의 推定

일반적으로 단석의 ‘壇’<sup>13)</sup>이란 지면 보다 조금 높은 자리를 뜻하는 것인데, 設壇의 목적은 神明을 기다리는 것으로 짐작된다.<sup>14)</sup>또한 金庾信 역시 佛寺에 나아가 設壇祈禱하여 天變을 얻었던 것도 모두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sup>15)</sup>또한 단석을 단순한 法席으로만도 볼 수 없는 것은 ‘至今不墜壇席’이라하여 一然이 親見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그 형태에 대한 해명은 중요하다. 다시 일러 이 단석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천왕사지 현장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현존 遺構를 통하여 해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필자는 이 “壇席”이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며,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였을까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우려왔다.

그렇다면 이제 사천왕사지 현장에서 이 단석에 준하는 유구에 대하여 탐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천왕사지에는 금당 앞 좌우에 木造雙塔址가 있고(도판 1·2·3 참조) 이와 대칭되는 후방에 소위 經樓址라는 것이 이와 對稱으로 좌우에 있다. 이 후방의 대칭유구는 전방의 쌍탑지와 대등한 유구로서 필자에 의하여 일찍부터 주목된 바 있다.(도판 4 참조) 이럴 경우 후방의 대칭유구를 左經樓와 右經樓, 또는 鍾樓·鼓樓라 하기도 하나 그 어느 것도 분명한 것은 아니다. 즉 이 유적에 대한 최초 발설자는 日人 藤島亥治郎인데, 그 자신도 이 遺構의 내용이나 전래 유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하고 막연한 추정을 하고 있다. 즉 후지시마는 “금당 북쪽에 대립한 二址를 左經樓 및 右經樓라 함은 필자가 嚆矢다. 在來, 이 二址에 무슨 유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定說이 없다.”<sup>16)</sup>고 하였다. 또 高裕燮 역시 이를 塔址로 보았던 보고서(大正十一年度 古蹟調查報告書 第一冊)는 잘못이라는 후지시마의 견해와 같은 의견을 내면서 이를 經樓, 鼓樓(또는 鍾樓)에 해당하는 건물로 보기도 하였다.<sup>17)</sup>다만 興輪寺의 경우 左經樓<sup>18)</sup>의 기록이 있지만 사천왕사에서는 이를 經樓라고 주장할만한 근거도 없다.

13) 壇은 字典에 따르면, 흙을 높이 쌓아 위를 편평하게 만들어 특수한 형사를 하는 장소라 하였고, 이를 轉하여 좀 높게 베풀어 놓은 자리라 하므로 地面 보다 높은 곳임을 알게 한다.

14) 近魯陽樊君 被徵初至 朝廷設壇席 猶待神明(後漢書).

15) 『三國史記』 卷42, 「열전제2 金庾信條」, “...初庾信聞賊圍城曰 人力既竭 陰助可資 詣佛寺 設壇祈禱 會有天變 皆謂至誠所感也...”.

16) 藤島亥治郎, 『朝鮮建築學論』, 東京建築學會, 1930, p.59.

17) 高裕燮, 『朝鮮塔婆의 研究』, 乙酉文化社, 1954, pp.11~12.

18) 『三國遺事』 卷3 「興輪寺壁畫普賢條」, “第五十四景明王時 興輪寺南門 及左右廊廡災焚 未修 靖和弘

금당 후방의 현존 유구는 동서에 대칭하여 두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데 각각 4방 3칸의 방형 초석(사방 약 80cm)이 높이 약 60cm 정도의 토단 위에 다소 교란되어 있다.(도판 5·6 참조) 두 지역에 각각 12개의 초석이 토단 둘레에 口字 형태로 배치되었는데, 초석의 상면 중앙에는 각기 직경 약 20cm에 깊이 약 20cm의 圓孔이 있고, 원공 주변에는 약 50cm 내외 크기의 二重 突起線이 정방형으로 molding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네 모서리 부분에서 斜角을 이루면서 초석의 네 귀퉁이로 연결됨으로써 일종의 隅棟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도판 7 참조) 그러니까 중앙의 圓孔 주변의 정방형 부분이 높고, 그 바깥으로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특수한 형태이다. 이 유구의 용도에 대하여는 과거 狼山 유적조사에서도 고심한 바 있다. 또한 후지시마 역시 이 초석에 대하여 의심을 지니고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二址의 초석은 너무나 우아하고 화려하며, 精巧 精緻하게 만들어져서 현존하는 조선의 초석을 통하여서도 이에 比肩되는 물건을 얻을 수 없다. 만일 탑이라면 이와 같이 정중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sup>19)</sup>

그러나 그는 앞서 본바와 같이 별다른 의심없이 左右 經樓址로 보았는데, 이러한 주장은 전후 모순을 지니게 된다. 즉 이 24개의 초석이 너무나 우아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다른 곳에서는 이와 같은 예를 볼 수 없다 하고, 이 초석이 탑이라면 이렇게 특수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초석 자체가 목탑의 기둥에 숨겨지는 것이므로 이 초석에 나타난 몰딩과 같은 조형이 필요 없다는 뜻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대로 經樓로 보더라도 초석 자체가 기둥에 숨겨지기는 마찬가지이므로 상부 표면 중앙에 직경 약 20cm 크기의 圓孔, 그리고 정방형의 柱座와 함께 隅棟과 같은 몰딩을 지닌 이 초석은 반드시 외부에의 노출을 전제로 하고서 제작되었음이 분명하다.

과거 필자는 금당 후방 좌우대칭의 위치에서 각기 圓孔을 지닌 12개의 특수한 초석이 있는 이 遺構가 위에서 언급한 文豆婁秘法과 관련된 壇席으로 추정해나왔다.<sup>20)</sup>

이것은 좌우대칭이므로 도합 24石이 되지만 좌우 遺址를 각기 독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遠願寺 동서삼층석탑의 경우 초층탑신에 사천왕, 그리고 상층기단 4면에 十二支를 배치한 것이 도합 24구가 되는 것이지만 이 석탑 역시

繼二僧 募緣將修 貞明七年辛巳五月十五日 帝釋降于寺之左經樓 留旬日 殿塔及草樹土石 皆發異香 五雲覆寺”.

19) 藤島亥治郎, 前掲書, p.60.

20) 장충식, 前掲論文.

좌우탑을 각각 독립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도판 8·9 참조)

이와 같은 추정 은 앞서 기록된 “王以彩帛營寺 草構五方神像 以瑜伽明僧十二員 明朗爲上首 作文豆裏秘密之法”에서 주목되었다. 그것은 十二員의 12라는 수와 이곳 약 60cm 높이의 土壇 위 동서 대칭에 마련된 圓孔을 지닌 정교한 초석 12석이 바로 瑜伽明僧十二員의 상징적 시설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唐의 來侵에 따른 초기의 급박한 상황에서는 彩帛으로써 절을 꾸미고, 풀로써 五方神像을 만들어 유가명승 12인으로써 明朗을 우두머리로 하여 문두루비법을 행했다고 하였지만, 이에 대하여는 이후 사천왕사의 개칭에 따라 이같은 “十二員”의 상징적 조형물을 남겼으리라 짐작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처음 명랑에 의한 문두루 비법이 행해지던 때는 이와 같은 壇席을 마련할 여유가 없었을 것이며, 또한 그럴만한 형편이 아니었다. 이후 사천왕사가 건립될 당시(679) 금당 전방의 동서목탑과 함께 가람의 균형을 고려하여 좌우대칭으로 마련됨으로써 십이지에 상응하는 十二礎石이 동서에 배치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가람의 전체적 형식으로 볼 때는 五方神과 연관된 것으로 판단된다.<sup>21)</sup>

이와 연관하여 佛經 가운데 文豆(頭)裏의 作法에 대한 기록이 보여 주목되는데, 그 내용은 사천왕사 금당 후방의 壇席址로 추정되는 동서 12초석 圓孔의 이해에 중요한 시사를 지닌다. 이 가운데 造形과 관계되는 부분만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부처님이 제석천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五方神王名字이니 만약 말세에 四輩弟子(四穿, 곧 比丘·比丘尼·清信士·清信女)들이 위험한 액난을 만나면 위의 五方神王과 그眷屬의 이름을 員(圓)木 위에 써서 文頭裏法을 삼을지니라. 그 뜻이 이와 같아니 그대들은 올바르게 행할지니라’. 帝釋天이 아뢰되 ‘員(圓)木 文頭裏의 크기(縱廣)는 어느 정도입니까?’ 하니,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크기는 七七分(49分)이니라’. 제석이 다시 여쭙되 ‘어떤 나무가 가장 좋습니까?’ 하니 ‘金銀珍寶가 최상이고, 그 다음이 栴檀木과 여러 가지 雜香木이니 이로써 문두루의 형상을 삼을지니라.’”<sup>22)</sup>

라고 하였다. 이로 미뤄 본다면 금은진보 또는 전단향나무나 잡향목 등으로써 五方神王과 그 권속의 이름을 圓木 위에 써서 文豆裏(神印)의 형상을 삼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말하는 원목의 縱廣은 七七分이라한 것에 대하여 “圓

21) 金堂을 중심으로 그 전방 좌우의 쌍탑과 후방의 단석으로 추정되는 좌우대칭의 구조물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짐작된다. 앞의 大正11년도 고적조사보고서에서는 壇席으로 추정되는 금당 후방의 유구를 목탑지로 보고, 이를 포함하여 사천왕사의 사명에 준하는 해석을 시도하였으나 후방의 유구는 목탑이 아님이 지적된 바 있다.

22) 『佛說灌頂伏魔封印大神呪經』卷7(大正藏21, p.515), “佛告天帝釋 是爲五方神王名字 若後末世 四輩弟子危厄之日 取上五方神王名字及其眷屬 寫著員(圓)木之上 名爲文頭裏法 其義如是汝宜行之 天帝釋言 員(圓)木文頭裏縱廣幾許 佛言縱廣七七分 天帝釋言何木最勝 佛言金銀珍寶最爲上者 次栴檀木種種雜香 以此爲文頭裏形 云云”.

木은 높이 7分, 넓이 7分の 둥근 나무로 만든다.”<sup>23)</sup>고 풀이한 것은 잘못이다. 縱廣은 단순한 크기로 보아야지 이를 높이와 넓이 각 7分(약 21.2cm)으로 본다면, 높이와 폭이 같은 기형의 원목이 되고 만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五方神王과 그眷屬의 이름을 圓木 위에 써서 文豆婁法을 삼는다.”고 한 것만 보더라도 그 규모를 능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縱廣 七七分이란 그 크기가 49分(약 148cm)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二七日(14일), 三七日(21일)과 같은 전통적인 倍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플로써 오방신상을 만들고<sup>24)</sup>, 瑜珈明僧 十二員으로써 文豆婁秘密之法을 지었다는 것은 이곳 금당 후방 좌우의 12개의 초석 圓孔에 圓木<sup>25)</sup>을 삽입한 것으로 추정된다.<sup>26)</sup> 그런데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瑜珈明僧 十二員을 십이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하는 것인데, 위의 경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문두루법은 五方神王과 그 권속의 이름을 원목 위에 써 붙이는 것으로서 풀이할 수 있다. 사천왕의 속성은 위로 帝釋天을 받들고, 아래로 八部衆 등을 거느리는 수호신장이다. 이들이 조형으로 등장된 대표적 예가 지리산 화엄사 서오층석탑(보물 133호)의 경우, 초층탑신에 사천왕, 상층기단에 팔부중, 하층기단에 십이지를 부조상으로 배치한 것이고, 그 외 원원사 석탑 역시 상층기단의 사천왕, 하층기단의 십이지를 각각 동서탑에 배치한 것과 같다.(도판 10·11 참조)

그러므로 五方神의 중심개념으로서 제석천을 비롯한 사방의 사천왕과 함께 그 권속에 대하여 상하개념으로 전개한다면, 제석천→사천왕→팔부중→十二支와 같은 등식이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12초석의 유구에 상응하는 十二員을 十二支로 볼 때, 그 초석의 수가 12石이 아니고, 좌우 도합 24石이 되는 것은 원원사의 동서쌍탑에 등장된 두 쌍의 십이지로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천왕사 금당 전방의 쌍탑, 그리고 뒷쪽 좌우에 존재한 이들 유구의 형태는 당시 유형하였던 좌우대칭에서 그 균형의 美를 찾을 수 있다.<sup>27)</sup> 또한 이러한 경우 二王

23) 金相鉉, 「四天王寺의 創建과 意義」 『新羅와 狼山』,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제17집, 1996, p.138.

24) 改刼된 사천왕사에는 실지로 五方神이 있어 그 神이 가지고 있던 弓弦이 끊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는데(『三國遺事』 卷2 景明王條) 물론 이는 활을 지닌 사천왕일 수 있으나 사천왕 자체를 五方神의 한 구성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다. 가람배치의 구도상으로는 중앙의 金堂을 중심으로 한 전후의 유구가 五方に 상응하는 가람배치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배치는 사천왕사만이 지닌 특수한 배치 방안이며, 사천왕은 위로 제석천을 받들고 사방의 수호를 나타내는 方位神이므로 이곳에 중심개념으로서의 五方神을 상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천왕사 금당 좌우의 목탑지에서는 良志의 조성으로 보이는 녹유사천왕상이 출토된 바 있고, 기록에서와 같은 “天王寺塔下八部神將”(『三國遺事』 卷4, 「良志使錫條」)條는 발견되지 않았다. 아마도 이는 좌우 쌍탑에 등장된 8구의 사천왕상을 팔부중으로 기록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왜냐하면 막연히 쌍탑의 사천왕을 신장상 8구로 주목하였을 뿐 지금까지 불교도상에 대한 조형적 지식이 충분한 시기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25) 上揭 藏經 註(元版과 明版經)에서는 員木의 員은 圓으로 기록하였다.

26) 장충식, 前揭論文.

27) 일반적으로 左體右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즉 좌협시가 여성적 母體임에 비하여 우협시는 남성적

으로서의 仁王이 2구가 아니고 각면 2구씩 8구가 되는 분황사나 경주 장항리 동서5층석탑 인왕상과 같은 배치를 들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遠願寺의 좌우 복합적 十二支 역시 사천왕사 단석의 복합적 유구에 중요한 시사를 지닌다. 더구나 원원사는 사천왕사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으며, 明朗의 후예인 安惠, 朗融 등이 金庾信과 함께 세운 호국사찰인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금당 후방의 이 초석은 일반초석과 다른 특수양식일 뿐 아니라 石列을 이룩한 12石의 안쪽에는 金堂 앞의 塔址에 있는 舍利孔을 지닌 心礎石에 比肩될 수 있는 유적과는 현저하게 다르다. 12개의 圓孔을 지닌 초석이 오랜 세월에 다소간의 교란은 있으나 정연하게 좌우에 구획되어 도합 24개의 동일한 형태의 초석을 남기고 있다. 그 基壇土까지의 폭은 2개소 모두 일변 약 7.5m의 정방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유구의 圓孔은 圓木 문두루의 插入孔으로서 一然이 기록한 文豆婁(神印) 秘法이 행해지던 密壇으로서의 '壇席'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그것은 經樓나 鐘樓를 비롯하여 일반건물에 사용될 수 있는 초석과도 다르고, 중앙에 圓木이 삽입된 圓孔을 지닌 方形柱座 주변의 노출을 목적으로 한 특수한 구조에서 이해된다.

#### IV. 맺 음 말

이상에서 신라 十二支神像의 선행조건으로서 사천왕사 壇席을 지목하였다. 이는 圓孔을 지닌 12점의 초석이 金堂 후방 좌우 土壇 위에 각기 동서에 대칭으로 도합 24점이 배치되었다. 이들을 壇席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초석이 지닌 특수한 구조, 당시 유행한 대칭의 미술, 그리고 두 쌍의 十二支像을 지닌 遠願寺 동서쌍탑에서 상징성의 原形과 變容을 지목하였다.

무엇보다 壇席으로 추정된 이 유구의 초석은 治石과 구조가 특이하여 일반 塔址나 여타 건물지의 초석과 달리 화려하며, 圓孔을 시설한 것이 바로 經文에 나오는 '文豆婁 圓木'의 插入孔입을 알게 하였다. 또한 후지시마 등이 주장한 經樓, 鐘樓, 또는 鼓樓說 등은 모두 근거가 없는 막연한 견해가 되었고, 정교하고 정치한 초석의 몰딩 역시 圓孔柱座의 노출을 목적으로 한 특수한 유구로서 종교적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壇席으로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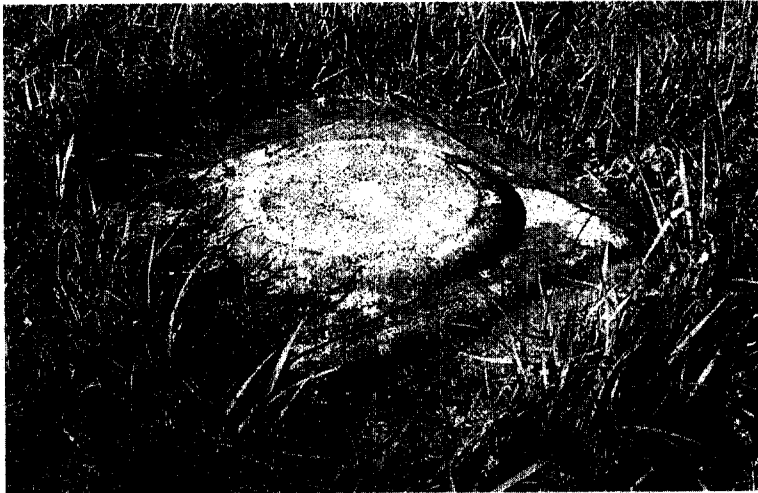
또 五方神과 그 권속의 개념은 제석천과 사천왕을 중심으로 하는 하위개념으로서의 팔부중, 십이지로 전개되었다. 아울러 『삼국유사』의 瑜珈明僧十二員은 불경에 등장된 圓木文豆婁의 상징이며, 이들이 현존 壇席의 圓孔에 삽입됨으로써 신라 십이지의 원초적 조형으로 등장되었다고 하겠다.

活용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불국사의 다보·석가 양탑의 경우가 그 대표적 예라 하겠는데 사천왕사지의 경우 12石이 아니고 24石이 된 점 또한 원원사와 마찬가지로 對稱의 美에서 이해될 것이다.

Abstract



도판 1. 사천왕사 금당지 및 목탑지



도판 2. 사천왕사 목탑지 초석



도판 3. 사천왕사 목탑지 심초석 사리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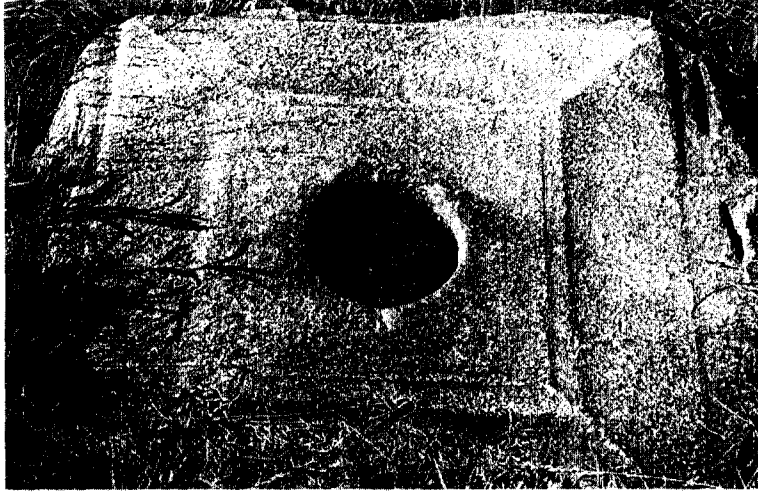
도판 4. 사천왕사 금당지 및 推定 壇席址 全景



도판 5. 사천왕사 推定壇席址 土壤



도판 6. 사천왕사지 推定 壇席遺構(部分)



도판 7. 사천왕사지 推定 壇席의 方形圓孔礎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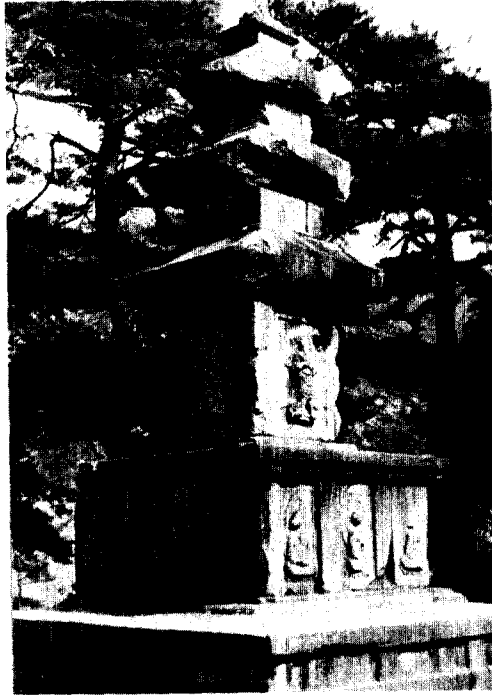
도판 8. 遠願寺址 동서삼층석탑(『국보』전재)



도판 9. 遠願寺 西三層石塔(『국보』전재)



도판 10. 화엄사 서오층석탑(『국보』전재)



도판 11. 원원사 동삼층석탑

---

**Abstract**

# A Study on the Platform Stone of Guardians Temple Site of the Four Heavenly Kings

Chang, Choong-sik \*

This paper is to study the platform stone of Guardians Temple of the Four Heavenly Kings. The platform stones have a meaning that they become the precedent condition of the zodiacal animals. The twelve foundation stones with hole placed symmetrically on the mud platform are stationed at both sides of the rear side of the main hall. The reason why these foundation stones are considered as the platform stone is the unique structure of the foundation stone, the symmetrical art, and the symbolism and the transfiguration of the zodiacal animals carved on the double stupas of Wonwonsa temple.

The foundation stones considered as the platform stones that have the special structure are different from the those of stupa site and building site. Also the hole carved on the foundation stone is to prove the hole of Munduru(Skt. Mudra) timber. In addition the hypothesis submitted by Fujishima came to the vague view without basis. The elaborate molding of the foundation stone is a unique remains that has a purpose to expose round post plinth.

The concepts of Five Directions Gods and the community were developed as Eight Congregated Devas and the zodiacal animals as the subordinate concepts on the basis of Sakra-devanam indra and Four Guardians. In addition the famous twelve Yoga monks records of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are the symbol of round timber Munduru. As they are inserted in the hole, they began to be appeared as the origin of the zodiacal animals in Silla Period.

---

\* Professor. Dep. of Art History.